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65)(9/17/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7 장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함, 1-3 절

시 119:1-2 - 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 여호와와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 6:5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 22:37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 2:16 -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마 11:7 -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사 40:6 -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1.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시 119:1-2).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신 6:5; 마 22:37; 아 2:1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은 거짓되고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되고 변함없습니다. 피조물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함께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 곁에 남아서, 당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과 작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그의 신실하심에 당신을 의탁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오직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분은 당신과 자신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셔서, 거기에 자신의 보좌를 놓으시고 앉으셔서, 왕이 되어 당신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벗어났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기꺼이 당신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요 16:1). 당신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완전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마 11:7).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사 40:6).

3.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본다면, 금방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유익을 찾는다면, 너무나 자주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해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온 세상과 자신의 모든 대적들이 그에게 끼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해악을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기독교 신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을 살아간다. 성경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한다. **요 1:12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정한 영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The Lord)’라고 부르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주)’라는 호칭으로 부르라고 강요했다. 그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주)’이므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선포하며 저항했고, 이것이 박해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실천한다. 그 실천의 예가 바로 예배이다. 예배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성도의 영성 생활의 정점에는 예배가 있다. 믿음과 영성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며, 예배 생활이 없는 영성 생활은 없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요구하셨다. **요 4:24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 그 모습은 제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주저없이 선택했음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기꺼이 주님을 선택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하셨다(요 21 장).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부탁을 들어 드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 **요 15:13-15 -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친구이시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친구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토록 진정한 주님이시요 친구되신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래서 롬 14:8 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롬 5:8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가난, 전쟁, 테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로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장기화 되는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